

“택배 산업, 성장 · 안전과 함께 가야”

〈기업〉 〈종사자〉

새만금 조력발전 첫 협력 무대 마련

안호영 국회 한노위원장, 정책토론회 열고 전북 미래 청사진 제시

김윤덕 국토부장관, 추석 맞아 전주 택배현장 찾아 안전 관리 · 배송 준비상황 점검 나서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전주는 물론 전국의 각종 현장을 오가며 민생안정정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9일 김장관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장관취임이후 건설현장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애환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

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며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면서,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며 “정부도 추석 물류 안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7월말 취임이후 9월 현재까지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화를 위해 경남, 경북, 서울, 전남 무안공항참사 현장을 비롯한 10여곳을 찾아 각종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기존 5km→10km 확대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위험성을 고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곧 시행될 특별법이 주변 지역 범위를 5km로 한정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관리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관리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이 범위를 일반 발전소 규정인 5km 이내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은 장기적이고 높은 위험성을 지녀 일반 발전소와는 차이가 다르다. 실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최대 30km까지 설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5km 제한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주변 지역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을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수 유류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킨 데 이어 현재는 국정과제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조력발전 기본구상’ 예산을 반영하는 데 앞장서며 사업 추진의 발판을 확고히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화 조력발전의 성과와 확대 가능성 △새만금호의 수질 현황 및 관리 방안 △수질개선, 전복 발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발전 및 새만금호 관리 수위 현실화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 제안과 각 부처의 실행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만금 해수유류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대책특위, 향후 대응 논의

25일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사업자(정읍그린파워)측의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에 대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명확히 반대한다”며 특별위원회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 역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읍시의회 주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시민 중심의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상길 위원장은 “정읍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송전선로와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정읍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전선로 주민설명회는 오는 25일 YMCA 청소년 수련관에서 19시부터 전문가 특강과 시민 소통 시간으로 진행되며 정읍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외부 후원 일절 금지·투명성 최우선

22~23일 도의회 연찬회
‘새로운 전북’ 헌신 다짐



염영선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1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도의회 연찬회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고 연찬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22일부터 23일까지 정읍 아우름 캠퍼스에서 도의원과 사무직원 18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쓰는 투명한 행사’를 표방하며, 의원과 직원 모두가 업무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감동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일 오전, 윤수봉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읍을 지역구로 둔 염영선 도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번 연찬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며 가장 먼저 ‘투명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도의회와 연관된 기관들에게 후원이나 참석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당부했다”고 밝히며, “혈세를 쓰는 행사이기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고 역설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이 한 톨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의회 의원들의 책임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연찬회는 단순히 근무지를 벗어나 쉬는 것을 넘어,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로 채워진다.

광운대학교 염건영 교수의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 사례’ 특강은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며, 박정순 JS 커뮤니케이션 대표의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강연은 도의원과 도의회 사무직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체육대회 대신 정읍 지역의 풍부한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눈길을 끈다. 내장산 국립공원에서의 트레킹은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동학 유적지 및 조선왕조실록 보존

서가 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K-POP의 원류인 민요와 판소리 공연과 함께 우리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되새기는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윤수봉 운영위원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정읍의 문화 예술적 특성을 살려 다른 연찬회에 비해 도의원과 사무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율도 평소엔 비해 높아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10여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때보다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영태 남원시장, 사매면 벼 병해충 피해 현장 방문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사진)이 최근 수확을 앞둔 논에 개시무늬병을 비롯한 병충해가 발생해 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8일 사매면의 벼 병해충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김 의장과 농업인들은 병

충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걱정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토양 관리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방제, 항공 방제의 필요성, 저항성 품종 선택, 적극적인 예찰활동 등이 중요함에 의견을 함께했다.

김 의장은 “농민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



하겠다”라며,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한 사항들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작년,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가세요!

추가로

✓ 농업인 요건

• 약정채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률
* 공적여농농지 1,000㎡ 미만인 경우만 가급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지급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 ②의 경우 공적 해농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적해농농지 수확액만큼 차감 후 지원

✓ 지급상한 연적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가급 시 연봉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자세한 가입조건, 지급금액 등은 상담 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KT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문의 ☎ 1577-7770